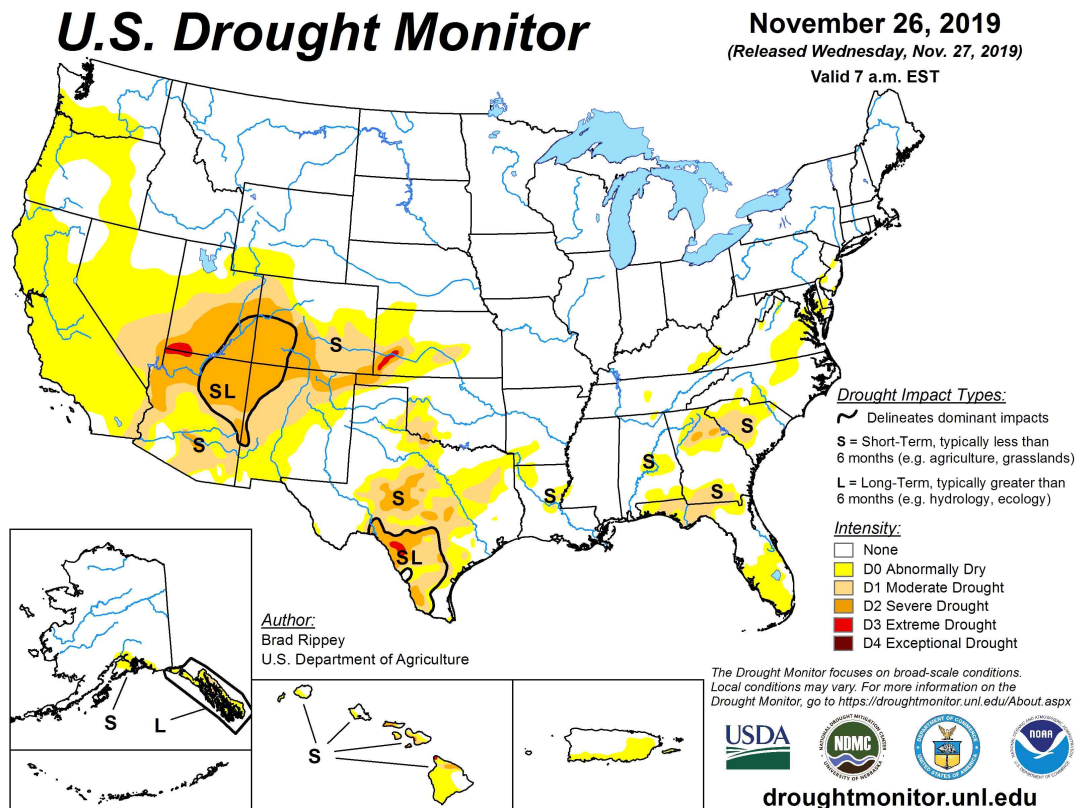


12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8)

□ 미국 기후 현황(11/24~11/30)

추수감사절에 붙어온 한 쌍의 폭풍이 주말 여행을 망쳤고 눈, 비, 강풍 등 여러 가지 위협스러운 날씨를 초래했다. 캘리포니아, 대분지, 인터마운틴 웨스트, 남서부의 높은 고지대에는 눈이 덮였지만 계곡이 있는 곳들에서는 호우가 지역에 홍수를 유발하였다. 하지만 상당한 강우가 북서부의 많은 곳들을 비켜갔다. 두 개의 폭풍 전선 모두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 일부에 풍성 강설을 일으켜 겨울 곡류를 덮어주면서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고, 가축에게는 스트레스를 가했으며 이미 젖어 있는 밭에 수분을 더해주었다. 한편, 오하이오 계곡 아래쪽과 남서부 내륙 일부의 주간 강우 총량은 2-4인치에 달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남부 덩 사우스 전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텍사스 남부에서 플로리다 반도까지 단기 건조가 더욱 심해져 갔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미국의 서쪽 절반에 찬 공기가 내려앉아 많은 곳에서 주간 온도는 평년보다 최소 5-10° F 낮게 유지되었다. 대조적으로 멕시코만 서쪽 지역, 미시시피 계곡, 오대호 주들의 위쪽에는 대체로 온기가 덮였다. 중서부 위쪽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이었고 멕시코 만 서부는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1/25~12/1)

동부 해안, 멕시코 만에 있는 주들, 태평양 북서부의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 대부분에 평년 이상의 강우가 내렸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인디애나, 켄터키 일부에 최소 3인치 가량의 강우가 내렸다. 미국 서부 대부분에서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2° F 이상 낮았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몬타나, 네바다, 와이오밍 일부는 평년보다 10° F 이상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텍사스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1/24~11/30)

■ 유럽: 강한 고기압권이 동쪽으로 장벽처럼 작용하여 폭풍들이 느리게 움직이면서 서유럽과 남유럽의 많은 곳들에 계속해서 흠뻑 젖는 비를 내리고 있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북부까지 또 한 차례의 적당하거나 강한 비 (5-7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광범위하게 내려주었다. 그 이후에 폭풍들은 고기압권 주변에서 나눠진 것으로 보이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칸 반도 아래쪽에 알맞거나 강한 비 (10-40 mm)를 내려준 것이 관측되었다. 최근 빈번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북동부,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에 있는 주요 재배 지역 대부분에서 90일 강우 총량이 평년의 100 %를 넘고 있었다. 달력이 12월로 넘어간 지금, 식생 건강에 대한 위성 자료로 볼 때 겨울 작물들은 좋은 모습으로 휴면에 도달하거나 들어가고 있었다. 다만, 북동 유럽 일부 -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은 좀 더 눈에 띄게 - 에서는 활착이 불량하다는 징후가 눈에 띄었다. 이번 기간 동안 차단 작용을 했던 그 고기압권은 대부분의 유럽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평년보다 2-6° C 높음)를 유지해주었다. 다만, 주말에는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서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겨울 작물이 휴면에 들어가도록 풀어주었다. 더욱이, 차단 작용을 하고 있던 고기압권이 약해져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주말에는 이전에 건조했던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 북동쪽 재배 지역에 다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

■ 호주: 서호주와 남동호주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 (대체로 5 mm 미만) 덕분에 밀, 보리,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 작업에 유리했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들에는 일단의 비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 일부에 얼마간의 가뭄 해소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가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파종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소나기들이 상당 수준으로 추가 면화 파종을 유발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종종 이듬해 초까지도 파종이 이루어지는 수수는 추가 파종 작업을 고무시켰을 것이다. 이 비가 환영받을 만한 것이기는 했지만, 동호주의 많은 곳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을 종식시키려면 적셔주는 비가 자주 내릴 필요가 있다. 평균 기온은 동호주에서는 평년보다 2-4° C 높았고, 남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2° C 낮았으며, 서호주는 평년 근처였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의 많은 곳에 유익한 비가 내려서 초기에 있었던 건조 문제들을 더욱 해소함으로써 새로 심은 여름 곡물들과 유지 작물들의 전망을 밝혀주었다. 라 팜파의 많은 부분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코르도바 서부, 산타페, 엔트레 리오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 가량이었다.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는 계속해서 조건이 건조하여 (지역적으로 강우 총량이 10 mm 미만), 겨울 곡류의 성숙을 가속화시키고 해바라기, 옥수수 및 콩이 2차로 파종될 콩 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계속 제한하고 있었다. 더 북쪽으로 서쪽 농업 지대 (특히 살타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는 다시 날씨가 건조해졌고 옥수수 벨트 북동부는 일주일 간 건조하여 파종 작업을 두려하더니 다시 적당하거나 심한 소나기 (강우 총량이 10-50mm 또는 50 mm 초과)가 내렸다. 주간 평균 기온은 아르헨티나 농업 지대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 다만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이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갔다.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북부 지역은 여름 폭염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28일 현재, 해바라기가 작년의 94 % 대비 90 % 파종되었다.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각각 51과 46 % 파종되었다. 면화는 68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8 % 수확되었다.

■ 브라질: 계절 강우가 내린 범위는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로 확대되었다. 마토 그로소와 바히아 서부에서부터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비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콩, 옥수수, 그리고 사탕수수와 커피를 포함한 기타 작물들에게 대체로 알맞은 수준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하지만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의 낮 최고 온도는 계속해서 낮거나 중간 정도의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갔고 마토 그로소 남부 인근은 짧은 기간의 폭염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 및 낮은 40도 대)을 보이기도 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은 11월 25일 현재 각각 23과 12 %가 생식생장 및 종실 비대에 도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1월 28일 현재, 옥수수와 콩이 각각 86과 72 % 파종되었다. 옥수수는 42 %가 생식생장 및 종실 비대 단계에 있었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밀이 98 % 수확되었다. 유익한 비가 내렸던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예외적으로 북동부의 먼 내륙 지역 (토칸틴스 북부, 피아우이, 마란하오)은 지난주에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 계절을 벗어난 온난과 건조가 다시 시작되었다.